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2주일(하느님의 자비주일)

제35권 20호(나해) 2015년 4월 12일

[묵상]



여드레 뒤에
예수님이 오셨다

토마스는 스승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수 없었다.
다시 살아나실 거라면 왜 죽어야 하셨는가?
‘죽음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
하겠소.”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 말씀에 토마스는 엎드린다.
눈으로 확인했기에 엎드린 것은 아니다.
따지기 좋아하는 자기를 위해,
‘한 번 더’ 나타나신 스승의 애정에 감복했기 때문이다.

지식과 이론은,
사람을 설득할 수는 있어도 승복시키지는 못한다.
사랑과 애정만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승복하게 한다.

이후 토마스는 주님의 사도가 되어 목숨을 바쳤다.
그는 결코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래지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텍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오후 1:00 4째주 - ● 사목회 오후 1:00 ● 빈첸시오회 오후 3:00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코보 (310)569-3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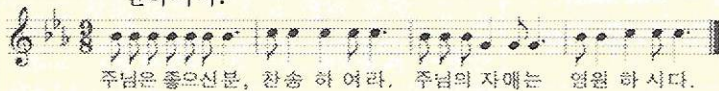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민찬기 요한, 최병위 (생) 장영진 안토니오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이현호 요한, 변해경 올리나나, 권분남 콜롬바, 이용식 베드로, 이필주 바오로, 고준희 제임스, 진시용 요한, 현시영 요셉, 김두철 아브라함, 한숙이 모니카, 김기준 안젤라, 박동옥 요셉, 이경식 & 지용애, 김진성 루스 송공광 카타리나 & 송봉규 요셉, 민남기 & 문순금 (생)서성용 베드로, 토복구역원 가정, 대건 부부회, 백삼위성당 전 신자, 박홍룡 요셉의 은인들, 서은지 마리아, 정린다 켈마 & 정엘리스 클라라&정애나 세라피나& 정애릭, 이행자 리드비나 & 이근모 마리노, 장영진 안토니오, 석순영 아네스, 박지상 아우구스틴&박엘리아나, 김지훈대건안드레아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postles) 4,32-35

화답송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주님은 나를 벌하고 벌 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제 2독서 요한1서 (John) 5,1-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음 요한(John) 20,19-31

영성체송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62	182	166
봉헌	361	126	310
성체	423	299	280
파견	170	167	167

올바른 성령 이해

제4장

은사의 식별

2. 은사 식별의 기준

3) 성령의 열매

만일 누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두려움에 속박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거나, 또한 하느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앞세우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스르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그리고 성령의 열매와는 반대되는 것을 드러낸다면, 그 은사는 진정한 것이 될 수 없다.

4) 일치

성령께서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선사하신다(에페 4,11-16 참조). 아울러 같은 성령께서는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평화의 끈으로 일치를 이루어 주신다(에페 4,3 참조). 사실 교회의 일치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11). 또한 제자들의 말을 듣고 당신을 믿게 될 사람들, 곧 미래의 교회 구성원들도 하나가 되기를 성부께 간청하셨다.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20-21). 바오로 사도 역시 교회의 일치를 강조하였다. 사람의 몸이 하나이면서도 여러 지체를 지니고 있듯이, 교회도 다양성 안에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1코린 12,12-31 참조). 또한 에페소서의 저자는 평화와 일치를 이룩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권고하였다(에페 2,11-22 참조).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인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이루시는 분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소망과 성령의 활동에 응답하여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회는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로서, 죄로 말미암아 다툼과 분열로 얼룩진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일치와 화합에 어긋나게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갈라 5,20-21) 와 같은 ‘육의 행실’ 을 저지른다면, 그가 주장하는 은사는 진정한 것이 될 수 없다.

<◆계속>

잊을 수 없는 만남

인생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고, 그 중에는 잊을 수 없는 만남도 있습니다. 누구든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한 만남을 잊지 못합니다.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한자리에 모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꼭 잠가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불쑥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인사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스승을 버리고 도망간 못한 제자들에게 용서와 평화를 전사하는 말씀입니다. 죄가 무거울수록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처지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그럽게 용서를 베푸시어 두려움을 떨쳐내고 기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죄를 사하는 권한을 주십니다. 자신들이 받은 용서와 평화를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토마스에게는 또 다른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토마스는 스승이 위험을 무릅쓰고 라자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 길을 떠나려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려 갑시다.”

(요한11,16) 토마스는 다른 제자들보다 스승에게 더 큰 신뢰를 지녔기에 그분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 더 큰 충격과 절망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뵈었다는 동료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직접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고 버팁니다. 예수님은 여드레 뒤에 토마스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토마스가 원하는 대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십니다. 이런 만남 덕분에 토마스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남다른 실망과 좌절 속에 주저앉았던 토마스를 찾아오시어 남다른 방법으로 그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토마스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크게 다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은둔하기 쉽습니다. 토마스도 그럴 위험에 있었지만, 동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의 동료들, 곧 교회 공동체와 함께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마태 18,20)는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 안에 주님이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을 건네시고, 성체성사와 다른 성사들을 통해 우리를 만나려 오십니다. 또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들(제2독서)을 통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가진 바를 서로 나누는 공동체(제1독서)를 통해 사랑의 주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이런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간다면 ‘잊을 수 없는 만남’이 우리에게 전사될 것입니다.

◆ 손희송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결국은 나의 허물

남의 허물을 애써 들추고 남을 깎아 내리고 돌아온 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잠념에 빠졌으며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그런 날의 불안은 대체로 맞아떨어졌는데
나는 종종 내 마음의 풍경으로 타인을 읽곤 했기 때문입니다.

◆이영 아녜스/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레 테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민상 사도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1,3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레 테레사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남 1,2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하느님의 자비 주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대희년인 지난 2000년 부활 제2주일에 폴란드 출신의 파우스티나 수녀의 시성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황은 하느님의 자비를 기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2001년부터 해마다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자비에 감사드리고자하는 것입니다.

◆소방 대피 훈련

오늘주일(12일)11시 미사후 소방 대피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에 안전하게 참여하며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서 질서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본당 신부님께서 휴가차 모국 방문하십니다.

- 일시 : 4월13일(월)~30일(목)
- 신부님께 영육간의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이 기간 동안 월, 화, 금요일 미사는 없습니다.
- 수요일, 목요일 미사는 정상대로 있습니다.

◆ 교리반 예비자 모집

2015년 예비자 봉헌을 위해 모든 신자 분께 기도와 인도 부탁드립니다.

- 모집 및 전교 기간 : 3월8일 ~ 4월 30일
- 환영식 : 2015. 5월 3일 미사 후 강당
- 교리반 : 5월7일 ~ 12월10일, 매주 목요일 8:10 ~ 9:10
- 세례식 : 2015. 12.13 예정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310-796-6960)

◆2015-2016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신청 안내

올해로 네번째를 맞이하여,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가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을 받습니다.

- 수혜대상 : High school 12 학년, 대학 과정1-3학년 재학생
- 자격 : 본당 등록 신자 또는 등록 신자의 자녀로, 교회 활동과 봉사에 참여하며,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 선발 방법 : 1차 신청서류 심사, 2차 면접
- 신청 기간 : 4/27/2015 - 5/31/2015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음.)
- 장학금의 수여 금액은 수혜 학생 1명당 \$ 2,000이며, 수여 예정일은 8/9/2015 (주일)입니다.
- 문의는 본당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4월12일(주일) *PV3반 : 잡채밥(\$3)
* 주일학교 : 치킨 케사디아 (9학년)
- 4월19일(주일) * 토동1반 : 카레(\$3)
* 주일학교 : 햄 & 치즈 샌드위치 (8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고천용 권영옥 김 욱 김기정 김선제 김양금 김옥보 김정웅 김정희 김종렬 김현숙 민기남 민순섬 박씨니 박정희 방정복 배제일 변정선 석순영 송기철 송영미 엄세중 엄정자 윤분아 윤희동 이귀분 이미예 이상덕 임 순 장영우 전정일 조소영 주용순 최기남 최미열 최상만 한장환 송마이클 영희가보라	고천용 김 욱 김기정 김선제 김양금 김옥보 김현숙 민기남 민순섬 박씨니 박정희 방정복 변정선 석순영 엄세중 엄정자 윤희동 이귀분 이미예 이상덕 임 순 장영우 주용순 최미열 최상만 한장환 송마이클 영희가보라
합계:\$3,160	합계 : \$2,070
주일미사 헌금 : \$5,029 예루살렘 성지보존기금 : \$ 724	감사헌금 : \$800(김병조, 신봉석) 희생애금 : \$ 5,385.41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8학년 - 12학년
- 일시: 7월24일 (금) - 7월26일 (일)
- 장소: University of San Diego
- 참가비: \$200 (접수: 주일학교 교사실) (**환불 불가능**)
- 신청마감: 4월5일까지 등록한 학생들만 참석 가능함.
본당 주최 행사가 아니므로 이후 등록은 불가능함
- 문의: 주일학교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 백삼위 한국 학교 성인 반 수업중

- 과정 : 한글 기초, 읽기, 쓰기반
- 장소 : 백삼위 한국 학교 2층
- 기간 : 4월10일 부터 매주 금요일 (07:00~08:30)
☎(213)700-9399

“세 신자 환영합니다.”

☺ 서로 인사 합니다. ☺

남가주 소식

◆ 작은 예수회 L.A. 분원 공동체를 위한

“함께 삶의 기쁨” 행사

- 행사 명: 공동체를 위한 “함께 삶의 기쁨을”
- 일 시 : 2015년 4월 18일 (셋째 토요일)
- 미 사 : 11시
- 식 사 : 정오
- 장 소 : 작은 예수회 LA분원
(올림픽과 실로암 약국이 있는 아라파호 골목길)
1137Arapahoe St.
Los Angeles, CA 90006
☎(213) 820-6535

부르심은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속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번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지경수 마테오 991-4838 4/12(일) 오후1시 성당
	2	김찬구 요한 701-6343	유선식 필립보 213-718-9262 4/11(토) 오후 6시 30분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4/17(금) 오후7시30분 성당 1층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김충섭 마틴 490-9662 4/19(일) 오후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이재호 펠렉스 848-0590 4/11 (토) 오후6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우영희 엘리사벳 691-6087 4/17(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박영수 다미아노 625-3312 4/25(토) 오후6시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테레사 634-6923 4/10(금) 오전11시 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김 루시아 213-458-3356 4/18(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권오상 바오로 257-8416 4/13(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	박진수 스테파노 / 749-315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4/11(토) 오후 7시 강당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송재훈 필립보 377-4219 4/10(금) 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정판영 레오 793-6157 4/17(금) 오후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허정자 텃다 890-1778 4/19(일) 오후 4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선민 마리아 617-3568 4/14(화) 오전 10시 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

오후1시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오후1시

124위 시복 특집< 23 > 김시우 알렉시오 (1782 ~ 181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하시려고 수난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충청도 청양 출신의 김시우 알렉시오는 지체가 그리 높지 않은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성품이 착하고 어질었으며 어느 정도 학식도 있었지만, 몸의 오른쪽을 쓰지 못하는 반신불수인 탓에 혼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찍이 고향 인근에 전해진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김시우는 성실히 신자의 본분을 지키면서 누이에게 교리를 가르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우들에게 교리를 설명해 주거나 비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교우들을 찾아 다니며 애궁을 받아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왼손으로 교회 서적을 필사하여 교우들에게 나눠주고 약간의 돈을 얻기도 했습니다. 1815년 초에 을해박해가 일어나자 김시우가 몸을 맡긴 진보 머루산 교우촌(현, 경북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에도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포졸들이 교우들을 체포하자 김시우는 자원하여 천주교 신자임을 밝히고 울면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왜 우느냐 묻는 포졸에게 “나도 천주교 신자인데 불구의 몸이라고 잡아가지 않으니 그것이 서글퍼 옵니다.” 하고 대답한 김시우는 결국 함께 체포되어 안동을 거쳐 대구로 압송되었습니다. 가혹한 형벌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증거하던 김시우에게 감사가 물었습니다. “네가 예수를 숭배한다고 들었다. 그 예수라는 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에 지나지 않는데, 무슨 이유로 그런 자를 숭배하느냐? 그 죽음에 무슨 훌륭한 점이 있다는 게냐?” 김시우가 대답했습니다. “중국에 9년 동안 장마가 젖을 때 백성을 걱정하느라 나라의 우 임금은 자기 백성을 구하려 8년간 나라를 두루 다녔고, 세 번이나 궁궐 앞을 지나치면서도 궁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왕은 제 백성의 육적 구원만을 염두에 두었을 뿐인데도 만인이 그의 선덕을 칭송했습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하시려고 수난 받고 돌아가셨으니,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분을 섬기지 않는 자를 사람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감사 나리께서도 사람이시니 예수님께 감사 드리고 그분을 경배하며 천주교를 신봉하셔야 합니다.” 격노한 감사는 혹독한 형벌에 더하여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그의 턱을 부수라 명했습니다. 사형을 선고 받고 옥에 갇힌 김시우는 음식을 구할 수도 먹을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 대구로 이송된 지 약 2개월 만에 굶주림과 형벌의 후유증으로 옥사했습니다. 1816년 음력 10월 21일, 당시 그의 나이 서른셋이었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김시우의 열심과 재능, 변론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이를 듣는 모든 신자가 그를 교회의 영광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서울대교구 홍보국 엮음

무엇이든 하느님께 청해도 될까요? [교리상식]

☞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요한15,7) 하느님은 우리가 진실한마음으로 스스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하느님과 함께하려고 하면, 그분은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에게 용기와 이겨 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비 신자궁금증 105가지」 / 가톨릭출판사

성경을 한 번 다 읽어본 예비 신자입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느님의 존재가 무시무시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민족의 여자와 아이까지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어느 신부님이 20년 전 신학생일 때 적었던 글을 읽고 그 글의 유치함에 몸이 오그라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릴 때 적은 자신의 일기장을 읽어 볼 때 아마 같은 경험을 할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5세의 나와 30세의 나 사이에 성장이 일어났기에 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역사 안에 인류가 성장과 완성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기록한 책입니다. 당연히 ‘5세의’ 인류에게 대학교 수준의 윤리 철학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 시대와 그 수준에 맞게 하느님은 자신을, 자신의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구약의 무시무시한 하느님의 모습은 이제 막 걸음마를 몇 발 디딘 인류 속에 진리의 씨앗을 보호하며 키우기 위한 하느님의 노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울러 세상 창조 이래에 인류에 뿌려진 하느님의 진리의 씨앗은 구약 시대를 지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꽃을 피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옛 계약)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 신약(새계약) 성경을 통해,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구약의 불완전한 계명을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 안에 완성하십니다. 그렇다고 구약성경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일기를 적은 유치원생인 내가 없다면 논문을 쓰는 30대인 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권순호 신부/주례성당 주임